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4일

코스피지수	2238.88	▲	+9.62
코스닥지수	678.71	▼	-0.51
환율 (원 · 달러)	1156.10	▲	+0.1

비즈 프리즘 | 따뜻한 날씨, 유통업계 ‘겨울 특수’ 실종

비빔면·얼죽아... “여름 상품이 더 잘 나가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편의점 아이스 제품 찾는 고객 ↑
온장고 음료는 되레 매출 감소
이마트, 롱패딩 매출 30%나 ↓

예년에 비해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계속되면서 유통업계 매출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전통적인 겨울철 효자상품의 판매가 줄어든 반면, 여름철 상품으로 알려진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지난해부터 음료 트렌드로 자리잡은 ‘얼죽아(얼어 죽어도 아이스)’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세븐일레븐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음료 매출을 분석한 결과 즉석 원두커피 세븐커피의 아이스커피 매출이 전년보다 50.8%나 증가했다. 아이스크림, 생수, 스포츠음료의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다. 심지어 겨울철인데 아이스 음료를 마시기 위한 컵얼음 판매도 39.7%나 상승했다. 이에 비해 겨울에 잘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세븐커피 아이스커피를 사는 고객(왼쪽)과 이마트 패션PB(자체브랜드) 데이즈 매장에서 경량 의류를 고르는 고객. 예년 대비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면서 전통적인 ‘겨울 특수’가 사라지고 있다.



팔렸던 온장고 음료와 원점(분말과 티백이 들어있는 컵에 뜨거운 물을 넣어 마시는 상품) 매출은 오히려 6.8%, 7%씩 감소했다.

CU도 마찬가지다. 즉석원두커피 브랜드 GET의 아이스커피 매출이 전년보다 39.1% 늘었다. 하지만 두유와 꿀물 등 온장고 음료의 매출 성장은 낮았다. 김신열 CU 음용식품팀 상품기획자는 “예년과 달리 온장고 음료 매출이 시들

하고, 대신 즉석 아이스커피 매출이 크게 올랐다”고 했다.

겨울 시즌상품 인기가 부진한 현상은 대형마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마트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9일까지 매출을 분석한 결과 패션에서 가볍게 걸치기 좋은 경량 재킷 매출은 70% 넘게 증가했지만, 지난해 큰 인기를 모은 롱패딩은 30.8%나 줄었다. 여름시즌에 잘 팔리던 비빔면과

음료의 매출도 크게 늘었고, 특히 골프용품 매출은 19.4%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김수인 이마트 골프 바이어는 “겨울철 날씨가 온화하다 보니 봄을 기다리는 골퍼들의 소비 심리가 예전보다 일찍 찾아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봄맞이 정기골프대전 행사도 기존 3월 중순에서 2월 말로 앞당겨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iyaj@donga.com

4년 연속 수입차 1위 ‘벤츠’...올해 신차 9종·부분 변경 6종 출시

지난해 7만8133대로 역대급 판매 실적
AMG GT·마이바흐 풀만 국내 첫선

지난해 역대급 판매실적을 거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올해 수입차 시장 1위 수성을 위해 과감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9년의 성과를 짚어보고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담은 2020년 계획을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14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9종의 신차와 6종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또한 전기차 및 기술 브랜드 EQ에서는

6종의 EQ파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과 9종의 EQ 부스트 탑재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이다.

고성능 모델로는 국내시장에 처음으로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C와 더 뉴 메르세데스-AMG GT R 모델을 출시한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는 GT 부분 변경 모델도 함께 선보인다. 최고급 리무진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풀만과 최상위 SUV 모델인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GLS도 올해 국내에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9년 한국 시장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전년

대비 10.4% 성장한 7만8133대의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다. 성장 고공비행을 이끈 효자 모델은 E-클래스 라인업으로 3만 9788대가 팔렸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4월 초 부산에서 새로 ‘기브 앤 레이스’를 열고, ‘메르세데스-벤츠 GIVE’ 활동에 ‘기브 앤 컬처’를 추가해 문화 및 예술 활동과 기부를 결합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밖에 ‘메르세데스-벤츠 GIVE’참가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기브 앤 드림 장학금’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꿈



14일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 신차 출시 계획을 소개하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사진제공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을 키우는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몰입도 높은 스토리...넥슨, 신작 ‘카운터사이드’ 공개

서브컬처 팬덤 저격...내달 4일 출시

넥슨은 올해 첫 신작으로 스튜디오비사이드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카운터사이드’를 2월 4일 출시한다. 넥슨은 14일 서울 서초동 넥슨아레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신작을 공개했다.

‘카운터사이드’는 현실세계 노말사이드와 반대편 세계 카운터사이드의 전투를 소재로 하는 어반 판타지 역할수행게임(RPG)이다. 몰입도 높은 줄거리와 매력적인 캐릭터가 특징인 서브컬처 게임이다. 30만 자 이상의 텍스트와 50장이 넘는 컷 씬 일러스트로 이루어진 메인 스토리와 외전 등의 스토리, 끝없는 이면세계를 탐사해 전투와 이벤트를 경험하는 DIVE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투 플레이와 건물릿, 뇌명 브리드라 등 주요 콘텐츠를 소개하는 인게임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류태금 스튜디오비사이드 대표는 “출시



2월 4일 출시하는 넥슨의 2020년 첫 신작 모바일 게임 ‘카운터사이드’. 사진제공 | 넥슨

전부터 많은 유저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개발에 집중했다”며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해 만족할 만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은 2월 10일까지 게임 콘셉트에 맞춰 ‘증강현실 이벤트’를 실시한다. 넥슨플레이 애플리케이션의 지도에 등장하는 카운터와 점식체를 찾아 제보하면 최대 1만 넥슨플레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아차 텔루라이드, ‘2020 북미 올해의 차’ 선정

링크ン 에비에이터 등 제치고 수상

기아자동차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

기아자동차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TCF센터에서 열린 ‘2020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텔루라이드가 유틸리티 부문(이하 SUV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대 팰리세이드, 링크ン 에비에이터 등 3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라 경쟁을 벌였으나, 텔루라이드가 최종 선정됐다.

‘북미 올해의 차’ 주최측은 텔루라이드를 “럭셔리 SUV 수준의 디자인과 프리미엄 경험을 선사하는 신사양 및 성능을 겸비한 SUV”라고 평가하며 “기존 SUV 브랜드들이 긴장해야 할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라고 극찬했다.

이번 수상으로 한국 자동차는 지난해 2개 부문(승용 부문:제네시스G70, SUV 부문: 현대 코나)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



‘2020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기아차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 사진제공 | 기아차

상이라는 기록을 썼다.

텔루라이드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기아차의 판매를 확대시킨 일등공신이다. 지난해 2월 미국시장에 출시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5만8604대가 판매됐다. 이에 힘입어 기아차는 지난해 총 61만5338대를 판매해 8만9673대를 판매한 전년 대비 4.4% 성장했다.

원성열 기자

편진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삼성, 美 망설계 전문기업 인수

삼성전자가 미국 5G와 4G LTE 망설계 및 최적화 전문기업인 텔레월드 솔루션즈를 인수한다. 2002년 창립한 텔레월드 솔루션즈는 미국 대형 이동통신사업자, 케이블 방송사에 망설계, 최적화, 필드테스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량의 필드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검증 분석 자동화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기지국 최적 위치 선정, 무선신호 간섭원 추출, 기지국 셀 설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보다 50%에서 최대 90%까지 줄여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수 이후에도 현 텔레월드 솔루션즈 경영진에 회사운영을 계속 맡겨 빠르게 변화하는 미국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LG전자-美세렌스, 차량용 IVI 공동개발



LG 전자는 미국 차량용 음성 인식 솔루션 업체인 세렌스와 차량용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협약(사진)을 맺었다. 양사는 이용자들이 차 내에서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콘텐츠 재생 등 각종 기능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음성인식 기능을 탑재한 웹OS 오토 기반의 차량용 IVI(In-Vehicle Infotainment)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웹OS 오토는 리눅스 기반의 차량용 플랫폼으로 커넥티드 카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명근 기자

롯데백화점 ‘사롯데 드리머즈 7기’ 모집

롯데백화점이 26일까지 대학생 서포터즈 ‘사롯데 드리머즈 7기’를 모집한다. 사롯데 드리머즈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서류심사와 특별과제 심사 등을 거쳐 20명을 선발한다. 선발자는 3월부터 6월까지 여성우울증 인식 개선을 위한 ‘리조이스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과 마케팅에 참여한다. 7월에는 우수 활동자를 선정해 해외 문화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세븐일레븐 ‘쇼미 더 도시락 경진대회’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전국 조리학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쇼미 더 도시락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편의점 도시락의 핵심인 고객으로 떠오르는 10대를 위한 메뉴 개발을 위해 기획했다. 전국의 조리학과 고등학교 재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0대들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을 주제로 31일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중 10팀을 선정해 2월 최종 경연 대회를 열고 대상으로 뽑힌 도시락은 전국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정정욱 기자

조경임 교수, 유방암 환우 위해 기부



우를 위해 1000만 원을 병원에 기부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 U-헬스케어센터장인 조경임 교수는 2016년부터 메디컬ICT와 U헬스케어를 접목해 운동처방을 통한 대사질환 예방과 관리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핑크하트 캠페인도 개최해 유방암환자들의 심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정용윤 기자